‘정’과 ‘혜’가 하나 되니 허공이 가득 찼구나!



58 선의 중흥 도량 수덕사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定)과 혜(慧)로써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해 혜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 혜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바로 혜의 몸이요, 혜는 바로 정의 작용이니, 혜로 나아갈 때 정이 혜에 있고, 또한 정에 나아갈 때 혜가 정에 있느니라. (중략)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이 동등함이 아니요, 마음과 말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선정과 지혜가 곧 동등함이니라.”〈육조단경〉(월호 스님 역)

우리는 늘 양쪽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흰 것과 검은 것, 좋고 나쁨, 극락과 지옥, 성공과 실패…. 그렇게 극과 극에서 방황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오직 한 목소리로 두 끝을 여의라고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마저도 양쪽 끝으로 밀쳐두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두 끝을 여읜 중도에서 바라보는 실상이 그대로 진리”라고 혀가 닳도록 말하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이리 재고 저리 계산하며 욕망의 그림자를 좇고 있습니다.

그런 중생들을 향해 육조 혜능(惠能) 대사는 수행과 실천이 둘이 아닌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간곡하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누구나 선지식이요 보살이며 아라한이고 부처이기에 미리 “선지식들이여” 라고 불러주는 스승의 아량(雅量)이 무궁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

순례자는 지금 수덕사를 거쳐 덕숭산 중턱 정혜사 아래 만공탑(滿空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덕사는 조선 말기에 흐려질 대로 흐려진 한국 선불교에 새로운 꽃을 피운 경허 성우(鏡虛惺牛; 1849~1912) 선사의 선맥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도량입니다. 달마에서 육조 혜능으로 이어지고 혜능의 법이 다시 이 땅으로 넘어와 아홉의 산자락에 아홉의 문을 열어 면면히 흘러온 선풍이 옹골차게 맺힌 도량인 것입니다. 높지 않아도 높게만 보이고 넓지 않아도 넓게만 보이는 산과 도량, 그 정수리에 정혜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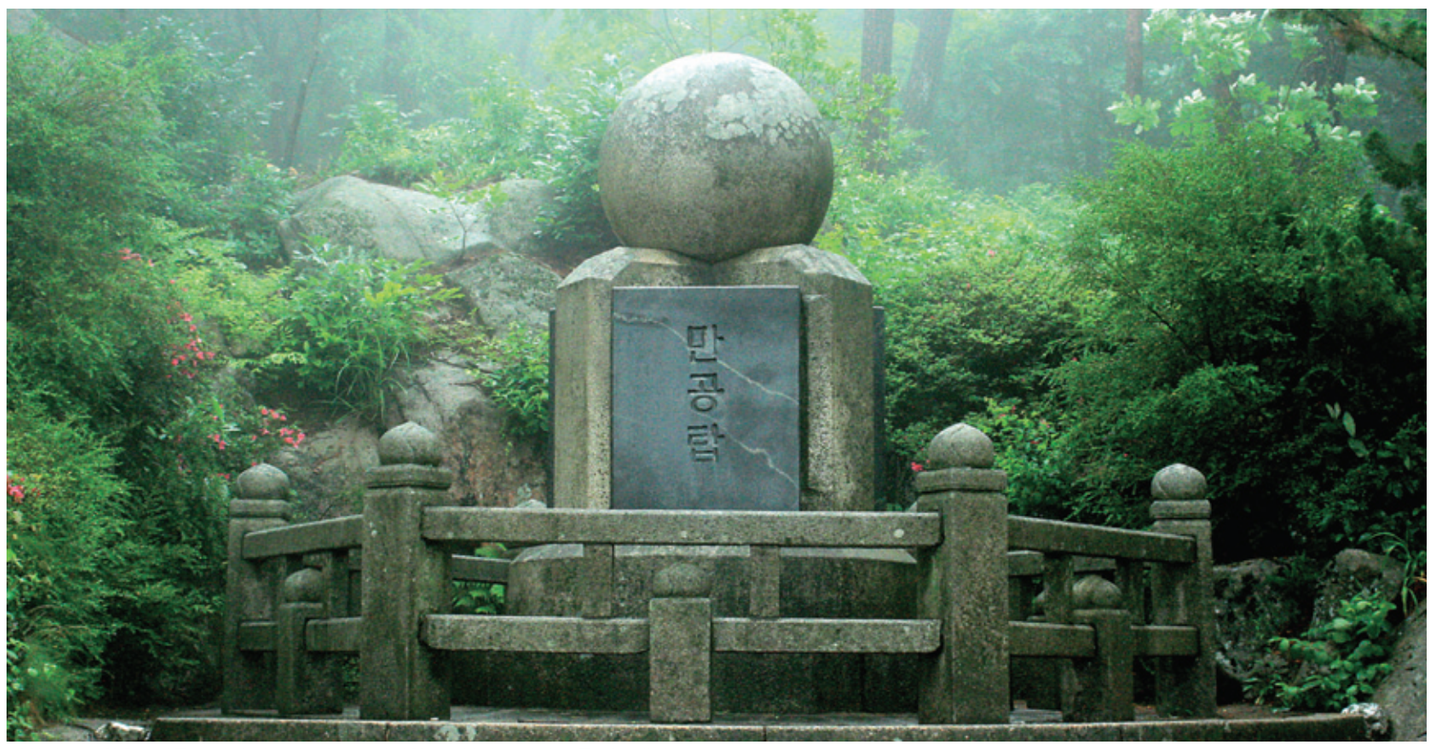
절 이름인 ‘정혜’와 사리탑 주인의 법호 ‘만공’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정과 혜가 둘이 아닌 경지에서는 텅 빈 허공도 가득 차게 되는 것이구나! 무엇으로 허공이 가득 찬다는 것일까? 허공은 허공으로 가득 찰 때 진짜 허공이겠지. 거기에는 정도 없고 혜도 없어서 만공 또한 없으리.

만공탑은 만공 월면(滿空 月面; 1871~1946) 선사의 부도입니다. 선사가 입적한 다음 해에 제자들이 세운 현대식 부도입니다. 둥그런 지대석 위에 팔각의 난간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안에 팔각 기단이 놓이고 그 위에 다시 3개의 팔각기둥이 서서 둥근 원상을 받치고 있습니다. 만공 스님의 제자로 동경미술학교 출신인 박중은 스님이 설계한 이 부도의 조형언어는 원형과 팔각형이 주를 이룹니다.

건축이나 탑에 있어 팔각형은 원형의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부도에 있어 ‘팔각원당형’이라는 말은 팔각이 곧 원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공탑은 원형 그 자체이며 정과 혜가 둘이 아님과 허공으로 가득 찬 허공(만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3개의 팔각기둥은 삼보(三寶)를, 팔각기둥은 팔정도(八正道)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사의 생애를 표상하는 부도이고 보면, 삼보와 팔정도 더 나아가서는 부처와 조사마저도 삼켜버린 대기대용의 진면목이 하나의 둥근 돌덩어리로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공 선사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제자인 만공 선사는 간절하게 수행하고 활발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정과 혜를 둘로 가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절한 수행으로 중도실상의 묘용을 얻은 자리에서 ‘세계일화(世界一花)’의 법문을 드러냈고, 역동의 시절인연을 따라 중생교화와 애국애족의 정도를 밝혀나가는 길에서



일원상으로 원융무애를 표현한 만공탑.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등록 예고됐다.

만공탑의 조형언어 선불교의 정맥 고스란히 담아
역대 방장들의 부도 모시면서 ‘부도밭 역사’ 시작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만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대체 그 한 가지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를 화두로 정진에 몰두 했습니다. 25세에 온양 봉곡사에서 새벽종을 치며 깨달음을 얻고 읊었다는 오도송을 되새깁니다.

빈산의 이치와 기운은 예와 지금의 밖에 있는데
흰 구름 맑은 바람은 스스로 오고 가누나.
무슨 일로 달마는 서천을 건너 왔는가.
축시엔 닭이 울고 인시엔 해가 뜨네.

만공 스님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마칠 때가 되어 거울 속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자네 나와 이별할 때가 되었네 그려.”

수행자는 생각하는 모든 것과 움직이는 모든 것이 수행의 결정(結晶)이어야 하고 수행의 귀결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가고 결국 하나 조차 떨쳐 버릴 때 “자네 나와 이별할 때가 되었네” 하며 자신과 이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공탑 앞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장맛비에 태풍까지 겹친 날의 아침나절입니다. 덕숭산은 그윽한 운무에 갇혀 땅과 하늘의 경계도, 바위와 나무의 춤사위도 삼켜 버렸습니다. 짙은 운무 속에서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 있음과 없음의 모호함 속에 만공탑이 서 있습니다.

계곡물 소리에 실려 솔향기가 산길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미끄럽습니다. 만공탑 앞에서 잠시나마 사색에 젖었던 순례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 세상에는 더 미끄러운 길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제부터 조금 더 조심하자고 다짐합니다.

수덕사 일주문 옆에 부도밭이 있습니다. 부도밭 터는 제법 넓지만 산 쪽으로 3기의 부도가 서 있을 뿐입니다. 절의 역사는 유구하지만 고승들의 자취가 전해지지 않은 탓입니다. 수덕사 부도밭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덕사 부도밭에는 역대 방장 스님의 부도가 모셔져 있다.

3기의 부도는 덕숭총림의 1~3대 방장을 지낸 혜암(惠菴; 1884~1985), 벽초(碧超; 189~1986), 원담(圓潭; 1926~2008) 스님이 주인입니다. 혜암 · 벽초 스님의 부도는 종형이고 원담 스님의 부도는 팔각의 기단 위에 6개의 기둥을 표현한 중대석과 낮은 연잎을 받침 삼아 일원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만공탑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것은, 원담 스님이 만공 스님을 지극히 모신 제자인 탓일 것입니다.

원담 스님의 부도 정면에는 원담 스님이 친히 쓴 ‘원담’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 이름에서 육조 혜능 대사가 힘주어 말한 ‘정과 혜가 둘 아님’의 도리와 텅 비어서 오히려 가득 찬 ‘만공’의 도리를 다시 발견 합니다.

덕숭산이 둥근 못[圓潭]에 잠겨 세계일화의 꽃을 피우는 상상을 하다가 부도밭을 나옵니다. 늘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인자하신 방장, 원담 스님. 생전에 몇 번 친견했던 기억을 더듬다가 어제 읽은 임종게가 생각났습니다.

올 때에도 한 물건은
온 일이 없고
갈 때에도 이 한 물건은
갈 일이 없다.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르름이로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이재복 지음(280면) 정가 12,000원
※ 누구든지 그림을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쫓겨나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 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빛 살림
정正골骨요법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척추교정, 무중력 감압치료, 수술, 경락, 지압 등 대증치료를 오래도록 받았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오셔서 한번만 체험해보시면 대번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신의 상쾌함을 곧바로 몸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어깨통증, 오십견, 협착증, 좌골신경통, 목 뻣뻣, 수족냉증, 갑상선, 안면마비, 휜다리, 암, 교통사고 후유증, 우울증, 불면증
당뇨, 아토피, 부정맥, 류마치스, 협심증, 두통, 심근경색증, 생리통, 발기부전, 전립선, 체온저하증, 골병으로 인한 통증, 적취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 요법.
자궁근종, 암수술전 · 후. 항암치료 마치신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 강력하고 놀라운 디톡스로 몸속을 대청소한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NAVER 정골본가 검색

책 구입시
『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정골본가(이영숙) 서울 성수동1가 14-35(우영B/D 4층) · 제2010-서울성동 0204호 · 207-01-43500

■ 도서구입안내
빛살림 요법 강좌세트(2권). 책값 20,000원을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농협계좌 : 농협 : 751017-52-024285 김순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책신청 : 054)637-9810